



충남인권조례 폐지 의미와 전망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기자회견 가져

동성애 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 서는 지난 2월 9일(금)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만들어진 '인권 조례'가 다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폐지가 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에는 동반연과 지역의 교회, 그리고 도의원들이 하나가 됨으로,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지방인권조례'가 없는 곳은 인천광역시뿐이며, 243개의 기초단체(시군구) 중에서는 103개의 기초단체가 '지방인권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는 동성애를 포함한 동성혼 등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로 보고 있다)

이렇듯 지자체들이 경쟁하듯, '인권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무엇인가?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근거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적극 지지해 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지자체들이 스스로 '인권조례'를 만드는 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다. 인권에 관한 것은 지방이 아닌, 중앙 기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은 법의 근거도 미비한(우리나라는 이런 인권조례를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자체가 없다) '조례'를 만들어, 인권센터를 만들고, 그를 통하여 동성애가 정상적인 것으로 교육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만든 '지방인권조례'를 충남지역에서 폐지운동을 펼쳐, 지난 2월 2일 충남도의회에서 찬성 26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폐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동반연은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의미와 그 동원의 활동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

사회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존연합회)가 맡았고, 취지 설명에는 김원평 교수(동빈연 운영위원장)가 맡았으며, 찬조발언에는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 그리고 강하정(전북 고 송경진 교사 부인) 씨와 육진경 교사(동성애반대교사연합 대표)와 한익상 목사(천안 바른 인권위원장)가 맡았다. 또 마지막으로 성명서 낭독은 제양규 교수(한동대)가 담당하였다.

김원평 교수는 인권조례는 인권을 왜곡하고 있고, 동성애를 인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인권센터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운동을 펼친 것인데, 세계 최초의 폐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김영길 대표는 인권조례 제정이 국가 기관의 위임 사항이 아니라는 점, 유엔 인권이사회가 가족개념에 대한 선언에서, 자연적이고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권장하고 있는 점, 비단나 세계 인권회의가 인권은 보편적이고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점

을 들어, 동성애는 진정한 인권이 아님을 전제하였다. 충남도의 인권폐지 과정은, 2014년 10월 충남도가 인권조례를 선언하고, 이에 2017년 2월 도지사 면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해 4월 19일 폐지청구권을 제출하였고, 2018년 1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발의, 마침내 2월 2일 폐지통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상위법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져서 마치 무소불위처럼, 교사들의 '교권'과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진짜 인권'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동성애'와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를 아이들에게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바로 '문제 교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두렵게 된 것이다.

한익상牧사는 천안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갑자기 불어 닥친 동성애를 포함한 '지방인권조례'를 폐기하기까지, 지역에서 있었던 여러 일화들과 결단, 그리고 지역 교회들의 협력과 단합된 모습을 소개했다.

끝으로 제양규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동반연은 동성애를 옹호하고 합법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적극적으 배격하고, 향후 6.13 지방선거에서 동성애와 동성혼을 옹호하는 정치 후보자들을 가려내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은 298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



‘특별한 기회와 훌륭한 선택’



조용목 목사

“달린 행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쫓아 가로되...” (눅 23:39~43)

사람의 일생과 죽은 후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고난 운명”이고 둘째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달린 비유는 운명과 선택을 대조하여 선택의 중대함에 대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누구도 운명을 무시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이러한 운명을 바꾸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들을 포착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한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인이므로 그의 자손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인간에게 주어지는 운명입니다. 그리고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방법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에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 여러 시대에 여러 번 예언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기회는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함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는 인생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기회입니다. 그 선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훌륭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복음을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 행하는 어떤 행사에도 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핍박을 당할 때 이를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을 당할 때 이를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핍이나 고통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는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향한 충성을 나타낼 기회로 삼는 것은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이 타고난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셋째는, 주님의 일에 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일에 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또한 곤란을 당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이 주님의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용한 수단과 힘이 있을 때 사용해야 합니다. 재물과 총명과 힘이 있을 때 주님의 일에 합하여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신이 선택한 일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정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하고 행한 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일에 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3.1절 뜻 모아 대한민국 다시 지켜내자”

300만 범국민대회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

3.1절 300만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월) 코리아나호텔에서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 모임'을 개최했다.

기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하

고 있는 '3.1절 300만 범국민대회' 준비위 측은 그동안 법 시민·사회 및 안보 단체를 대상으로 3.1 범국민대회의 취지와 의미, 구체적 진행 방식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어 오다가 이날은 기독교계에 행사

를 본격 알리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3.1절 300만 범국민대회' 준비위원장 전광훈 목사는 “말로만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할 때이며 나

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금은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롭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실마’ 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만은 없는 때”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내는데 뜻을 모아 줄 것”을 촉구했다.

전 목사는 또 “기술이져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며 “만약 교회가 지금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받을 것”이며 “3월 1일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지켜내자”고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을 역임한 홍재철 목사도 참석하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뒤에서 정치인들을 지켜보며 기도해 왔다. 이것이 해방 후 대한민국의 역사이며 한기총이 지난 1989년 세워진 것은, 당시 우리나라와 일부 기독교가 지나치게 좌로 흐르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목사는 또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3.1 범국민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박수를 치거나 관심조차 없는 이들이 많다”며 “또 어떤 이들은 앞에서도 두려워 나서지 못한다. 그런데 용감하게 뛰어든 분들이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한다는 것은 참된 신앙의 태도가 아니며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반드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규 장로는 “우리가 남은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라며, “종로5가에 교권 하나 잡으려고 시민 동생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서야 한다.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또 “북한의 마지막 전략은 고려연방제다. 남북 동수로 대표를 구성해 의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연방제를 도입해서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며 “지방분권이 바로 고려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통과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된다. 이런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나는 교회를 위해 헌신해왔는데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서명을 좀 받아달라고 하면 성도들의 생각이 다 달라져 못한다는 목사님들이 많다”며 “당장 예배를 못드리게 된다는데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장관까지 했을 정도로 법을 잘 안다. 이것은 보통 법이 아니다. 북한과 똑같이 만들겠다는 법”이라며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일이다. 1000만인 서명운동에 있는 힘을 다해달라. 교회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연 최규수 목사와 김효종 목사도 전 목사가 하는 일에 동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평지협에서도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33인 중기독교인의 마음으로 적극 동참하고 지원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목사는 “못지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며 힘을 합치라고 재언했다.

한편 3.1절 예배 및 300만 범국민대회는 오는 3월 1일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개최된다. 1시부터 2시까지는 구국기도회로 드리고, 2시부터 3시까지의 국민대회로 열린다. 3시 30분부터는 각 단체별로 움직임에 정이다.

이에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예수왕국, 복음통일이 반드시 이뤄질 줄 믿는다”면서, “이번에는 모든 태극기 집회를 하나로 하자”고 재언했다. 그러면서 3월 8일 장충체육관에서 전국 목회자 집회를 열 것이라며, “결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고 독려했다.

이날 모임에는 한기총에서 지역 목사와 홍재철 목사, 한기연에서 최규수 목사와 김효종 목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태희 목사, 연문인 대표로 이억주 목사, 김승규 장로(전 대림회장, 전 국정원장) 등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이 나서서 연대발언을 했다.

이날 참석한 기독교 교단장 및 단체장들은 3월 1일 뜻을 같이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이 하나 되어서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다짐했다.



한기연 바수위, 안식일교회 등 ‘예의주시’

JMS와 신천지는 한국교회 앞에 성명서 발표키로

한국기독교연합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이하 바수위)는 지난 2월 7일(수) 오전 11시 제7-2차 모임을 갖고, 시온성교회 L목사와 지방교회 및 안식일 교회 등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바수위는 이날 시온성교회 조사보고의 건과 관련, 조사보고위원장 이재훈 목사의 보고를 그대로 받기로 하되, 삼일일제, 인간론, 구원론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적절한 설교와 가르침 △비성경적인 설교와 가르침 △예의주시 △참여금지 △교단에서 재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 등의 결론을 내리고, 교단 및 진정인과 L목사에게 공문을



발송키로 결의했다.

바수위는 또 지방교회 및 안식일교회와 관련해서는 토론을 벌인 뒤 지속적으로 모니

터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이윤덕 정명석 목사(JMS)와 신천지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앞에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정기총회

성경적보수원형회복에 앞장, 대표회장엔 한홍교 목사 선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는 제33회 정기총회를 지난 2월 12일(월) 여전 도회관에서 개최하고, 대표회장엔 한홍교 목사를 선출하고, 지금까지 발여은 성경적 보수원형 회복운동에 주력키로 했다.

이날 예배는 송춘길 목사(예장 합동근본 총회장)의 사회로 이형조 목사(세계제사총련

원 원장)의 대표기도, 오현관 목사(대한예수교인수절성회 총무)의 성경봉독, 정경희 목사(전양사역자)의 특송,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의 인사, 민정식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김태호 목사(예장합동보수 총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지왕철 대표회장은 설교를 통해 “육에 속한 사역자와 영에 속한 사역자들은 겉으로 구분하기 쉽지 않다.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조직의 방법으로 사역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외적으로 사역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영적인 사역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비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하나님이 거둔다게 해주신 것은 영적사역자가 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런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결실이 떨어진다면 불법 사역자가 된다”고 강조했다.



기민협-필리핀참전용사회, 협약 체결

어렵게 살아가는 필리핀참전용사들의 자녀들 지원 위해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와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회(대표회장 원종문 목사)는 필리핀참전용사회와의 사회공헌협력협약체결을 지난 1월 29일 마닐라 센추럴파크호텔에서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희생한 필리핀 참전용사들을 위로했다.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와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회는 6.25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희생한 필리핀 참전용사를 위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참전용사들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공헌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사회공헌 협력협약 체결식에서 한인교류협력기구와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회는 필리핀참전용사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생활한반의약품, 의류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31만 세운동UN/유네스코역사기록물등재’ 위원회 이사장이며 준비위원장인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장관, 5선국회의원)의 특강 후, 참전용사회와 한인회 등에서 참석한 100여 명과 민천을 함께했다.

이번 사회공헌협력협약식을 계기로 송실



대기독교학대학원 총동문회와 필리핀한인정제인종연합회는 필리핀참전용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행사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고대우주준 CEO과정 47기의 동문들이 필리핀참전용사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기적으로 참전용사 자녀들에게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다.

기독교시민운동중앙협회 대표회장인 원종

문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아무 조건 없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필리핀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작게나마 보답하기 위해 사회공헌 협력협약식을 갖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깊은 관계를 갖고, 참전용사들의 자녀와 후손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이 일을 위해 서 후원해 준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 총동문회와 필리핀한인정제인종연합회에 감사의 드린다”고 인사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 한기연 내방

“사회 전반에 걱정의 목소리 많은 게 사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13일(화) 오후 4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을 방문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환담했다.

김부겸 장관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지만 부정 불법

요소를 미연에 방지해 공정정대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한국기독교에 요청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교계의 어르신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깨끗한 선거에 인

하도록 당부해 주시면 국민들이 그대로 따를 것으로 믿는다”면서 “간혹 부정할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려는 사람들에게도 목사님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준엄하게 꾸짖으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기독교는 선거에서 늘 중립을 지켜왔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계도해 왔다”고 말했다.

이동석 대표회장은 특별히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 혼란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교단장 단체장 긴급 성명서 발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과 교단장 단체장들이 지난 2월 14일(수) 오전 기독교연합회관 지하 컨벤션홀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전부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기총 제24대 대표회장 선거에서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의 일관 행사와 직권남용이 도를 넘어 불법이 난무한 상식 이하의 결정을 하였다.”면서 분노했다.

특히 “선관위원장은 제19회기 총회에서 선관위가 서류미비로 후보 자격을 탈락시키고, 정회중인 상태에서 이미 탈락한 후보에게 자격을 부여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새로운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한기총 정관을 위반한 24대 대표회장 선거를 전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는 “이번 특정 후보를 두둔하거나 편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님”을 밝히고, “한기총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럽고 탐욕적이며 초법적인 형태를 계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주요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증경대표회장들과 기관, 단체장들은 “한기총 선관위는 해체하라, 선관위원장은 물러가라, 임시회장 김창수는 사퇴하라”는 구호제창을 하고, 법령 싸움도 예고했다.

백석으로 갔던 대신 목회자들 ‘복원위원회’ 구성

법원이 제시한 ‘합의조정안’ 압도적 반대로 거부

과거 예장 백석과의 교단 통합에 참여했던 대신 측 목회자들이 지난 1월 31일(수) 법원이 제시한 합의조정안을 거부하고 대신 교단복원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신 수호 측(총회장 김동성 목사)을 이탈해 백석에 합류했던 이들은 지난 2월 8일(목) 안양대학교에 모여 법원의 합의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총 372명의 참석자 중 30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합의조정안 반대 290명, 찬성이 18명, 기권이 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탈 측 가운데 절반 정도가 모였다.

대신 총회장 유종국 목사는 투표인수가 안 되어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참석자들은 인원과 상관이 없다며 투표를 진행하자고 밀어붙여 투표가 이뤄졌고,



유 총회장은 위원장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 퇴장했다.

법원이 제시한 합의조정안은 △피고(대신총회)는 2018. 10. 1부터 피고의 명칭에 ‘대신’이 들어간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원고(대신 수호 측), 피고 및 조정참가인은 피고가 2015. 9. 14 제50회 총회에서 한 결의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총비용 및 조정참가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는 내용이다.

이날 압도적인 ‘반대’가 나온 까닭은 ‘대신’이라는 교단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면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신 수호 측과 이탈 측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대화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세군, 소외된 이웃 위해 사랑의 쌀 나눔

2017 자선냄비 성금, 금융권과 함께하는 아름다운나눔 성금으로 진행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는 최근 서울역 광장에서 2018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구세군의 2018년 본격적인 나눔의 출발을 알리는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쌀 나눔 물품을 나누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다. 특히 이번 물품은 전국의 국민들의 정성이 모인 자선냄비 성금으로 준비돼 전달되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행사 직후 배송된 쌀 8,000포와 라면 2,000박스는 서울시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그 외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구세군 지방교회에 전달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본 행사에 앞서 자선냄비 채원행사 부스와 포도존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구세군 김필수 사령관, 민병두 국회의원, 서대문구청 이종철 부구청장, 서울시장 김철수 희망복지지원과



장, 종로구청 이종주 복지지원과 과장, 신한은행 이병철 기관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구세군 홍보대사 배우 박인영, 개그맨 이정구가 사회진행을 맡았다.

김필수 구세군 사령관은 인사말을 통해 “구세군은 전문성 있는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나

눔의 실천을 이어가고 있다”며 “지나해 기부 문화가 위축됐음에도 구세군 자선냄비에 변함없는 온정을 나눠주시는 국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세군은 이번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다양한 배분(나눔)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명구 감독회장, ‘선거무효판결’ 항소

“연회 선거권자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지난 2월 2일(금) 제출했다. 항소장에서는 1심 판결의 취소와 원고(성도 목사)의 청구 기간, 소송비용의 원고 부담 등을 청구취지로 밝혔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항소장을 통해 1심 판결요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문제점을 선거무효 사유로 꼽은 1심에 대해, 피고 측은 “서울남연회뿐만 아니라 다른 12개 연회에서도

평신도 선거권자는 연공서열에 따른 당연적으로 여겨진다.”며 “선출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며, 실제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운영돼 왔다.”고 주장했다.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312명 중의 절반이 필요 없는 선거권자가 162명(당연직 94명, 사교지방 동자지방선거권자 24명, 여성 장로 44명), 의결이 필요한 선거권자가 150명인데, 이 150명은 서울남연회 15개 지방에서 장로 임명 순으로 결정돼 별도 의결절차

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항소장에서는 또 「항소심에서는 교리와 장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함께,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절차 진행에 존재하는 절차상 하자의 중대성 및 그 하자가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명구 감독회장 측은 감독회장직무정가 처분이 인용되더라도 항소를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제32회 목회자기도회 개최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장영기 목사)는 지난 2월 6일(화) 오후 7시 공산목양교회(담임 김정식 목사)에서 제32회 목회자기도회를 갖고 뜨겁게 기도했다.

광주지방회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회와 지방회를 비롯하여 목회자와 지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기도회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 한주 이른 6일에 모였다.

기도회에 앞서 김정식 목사의 이영래 사모가 준비한 푸짐한 저녁을 먹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이날 기도회는 회장 장영기 목사의 사회와 재무 박우 목사의 기도예로 이어, 교단 총회장 김양민 목사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기도회를 가졌다.



말씀을 선포한 총회장 김양민 목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은혜롭고 사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지방회와 지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이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쳐지고 이 일

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좋은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서 증경회장 조원제 목사의 축도로 모든 기도회를 마치고 공산목양교회에서 준비한 간식을 나누며 3월 월례회를 기약하였다.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2월 8일(목) 오전 11시 구리순복음교회(담임 신근철 목사)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계 김정순 목사(순복음행복한교회)의 찬양인도로 시작하여 총무 이봉기 목사(보리울순복음교회)의 사회, 부회장 한상용 목사(순복음성령교회)의 대표기도와 증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천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윤 목사는 고전 13:18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 소망,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십자가의 군병답게 믿음의 선두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과 세



상의 소망이 아닌 하늘나라 소망을 심어주어야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목회를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회원들을 축복했다.

이어 회계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

회)의 한글기도, 증경회장 임흥택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구리순복음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순복음후영교회 35주년 감사 및 임직예배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는 지난 2월 11일(주일) 오후 4시 순복음후영교회(담임 김경준 목사) 창립 35주년 기념 감사 예배 및 장로 장립, 집사 안수, 권사 임직 예식에 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김용 목사(증평 새희망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신병설 목사(주사랑순복음교회)의 기도, 회계 민병훈 목

사(예광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회장 최동순 목사(삼산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마 20:25-28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일하라고 주셨기에 직분을 맡은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순종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의 종을 견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고 존경하고 협력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 조재호 목사(장대교회)의 봉헌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임직식에서는 김경준 목사의 진행으로 박재명 장로, 노성복 명예장로 심봉환, 조정기, 최상근, 서동우 안수집사, 신상류 명예남 명예 권사 지방회 안수 위원(위원장 최동순 목사, 위원 이봉근 목사, 윤경현 목사, 김정수 목사)의 안수를 받고, 증서와 축하 임직패, 축하 꽃다발을 받았으며, 3부 축하 및 권면에서는 총무 김용 목사의 진행으로 나용찬 과산교수와 지방회 증경회장 김윤용 목사(증평순복음교회), 한국 농성회 사무총장 김기중 목사, 필리핀 판월드 평민 선교회 대표 노화진 선교사의 축사, 지방회 증경회장 이봉근 목사(이목순복음교회)의 권면이 있었으며, 휘어니 찬양단의 축하와 임직 받은 박재명 장로의 인사 및 광고에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이동수 목사(한희순복음교회)의 축도로 창립35주년 감사 임직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순복음후영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외국인 성도 등 취약층 위한 의료봉사

외국인선교회와 아주대병원 의료진, 그리스도의 사랑 실천



외국인선교회

외국인 성도와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을 위한 은혜와진리교회 외국인선교회의 의료봉사가 지난 2월 11일(주일) 수원성전 세계

선교센터에서 있었다.

이날 선교센터 내 12층 진료실과 치과진료소에서 실시된 의료봉사에 평소 병의원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많은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족 및 독거노인들이 찾아와 의료 봉사자들로부터 정성어린 검진과 치료를 받고,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치과, 내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의사와 간호사 등 아주대병원 봉사동아리 회원들과 국내 연수 중인 베트남 의사 등 의료진이 이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술을 베풀며 헌신하였다.

의료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교회 회원들은 병원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상담을 해주며 의료진의 진료 편의를 도왔다.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

‘느헤미야 기도회’ ‘에스더 기도회’

세계선교연합회

자유대한민국과 북한복음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회’가 북한선교회 주최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은혜와진리교회 인양정전에서 열리고 있다.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느헤미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말씀을 회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이룬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기도회는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그동안의 슬픈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번영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에 이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특정한 한미동맹과 국가안보를 위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과 복음화를 위해, 이단 사이버 척결과 한국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평일에 인양, 수원, 안산정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에스더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도 신유와 문제해결을 위한 기도와 함께,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에스더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앙망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벤엘교회에서 월례회 갖고 회무처리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2월 13일(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덕다리 776번지에 위치한 벤엘교회(담임 김기인 목사)에서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벤엘교회는 화성시 농촌지역에서 힘 있게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지리 잠은 교회이며 담임목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배당 공사를 직접 감독 시공하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미자 목사(샘교회)의 사회로 찬송인도에 서성령 목사(성지교회), 기도예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 성경봉독예 정세창 목사(안성은혜교회), 특송에는 사모일동이 하나님께 은혜롭게 찬양을 하였으며, 설교에는 회장 신동숙 목사가 남유다의 바벨론포로적전사대를 배경으로 활약한



에레미야의 말씀을 참여한 회원들과 함께 총 7장의 분량의 성경을 모두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나라와 교단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였다.

이어서 이영순 전도사(순복음믿음교회)의 한글기도,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배 후 회장 신동숙 목사의 진행으로 지방회 회부의 시간을 가졌으며 교단 뱃지 배포 및 제반 업무를 논의하였다.

마지막 순서로 벤엘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으로 인근 지역에 준비한 곳으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와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 모든 지방회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포토뉴스



지난 2월 5일~6일 치러진 목사고시 시험결과 부분적으로 부족한 응시생에 대한 재시험이 2월 20일(화) 총회 목대원 강의실에서 치러졌다.

■ 생명의 말씀 ■



신재영 목사

- 교단 부총사회장
- 새김천교회 담임
- 김천시 기독교연합회 중경회장
- 대구경북지방회 중경회장

오늘날의 세상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소유할까 하며 진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짜 소중한 것을 외면해버립니다. 또한 아무리 그렇게 말해주고 일러 주어도 먹음직하고, 보양적이고 탐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성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에서 정말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과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솔직히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로 태워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믿음(벧전 1:7)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

하늘 문이 열리는 신앙

(계 1:10, 4:1~2)

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육의 생각, 육의 경험 육에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지 않는습니까?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고정된 믿음은 아닌가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들리는 예배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에는 하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과연 어떠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 주신다고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예배드릴 때입니다.

앞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정부의 황제 숭배 사상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빛모 섬에 유배되어서 광산의 중노동형에 처해있던 사도요한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요한은 주의 날이 되자 성령으로 충만하여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의 날, 즉 주일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린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서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은 세우신 거룩한 강단의 주의 종을 통하여 나팔 같은 큰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둘째로,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며, 형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기도는 향이 되어 금대접에 담기며 너무 귀해서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했고 요한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고 했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도의 귀한 기도에는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셋째로, 온전한 심일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이 열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와 가이르노와 너희의 온전한 심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하지 아니 하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은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하였고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바로 성공이며, 형통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풍요로움이며, 확정의 변영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리라’고 포도즙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 3:9-10)

넷째로, 성령충만 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앞에 1장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사도요한의 신앙은 성령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렸고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합니다.

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신앙에서 실족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성령에 관하여 말씀하시다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이것이란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찾아 올 때에 그 신앙이 실족할 수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단지는 돌에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기까지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스테반은 열린 하늘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서 신 예수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려면 첫째가 예배생활이 확실해야 하며, 둘째는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셋째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에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하며, 성도들의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려면 첫째가 예배생활이 확실해야 하며, 둘째는 기도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셋째는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일조를 드리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학대학 교수의 성품이나 인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억지 설정이며, 한국의 우수한 신학대학 교수를 모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매우 불쾌하고 저질스러운 설정이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를 두둔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서울방송이 집요하게 기독교의 내부 문제 보도에 치중하는 것은 분명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목적이 기독교를 안티하기 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므로 한국 교계는 서울방송의 저의를 파악하고 이를 저지해야 한다.

방송은 공정해야 한다. 또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 서울방송의 편향된 보도는 언론 수용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며, 이런 행태가 지속되면 시청자들로부터 신뢰감과 공정성을 잃은 방송으로 기억될 것이다.

동정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



부산대 김원평 교수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동성애대책을 위한 강의를 마련, 오는 2월 26일(월)부터 이틀간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기독교동성애대책아카데미가 열린다. 아카데미 강사단은 ‘동성애 동성촌 개헌반대 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독소조항 및 지지체 인권조례 폐지 등 반동성애 운동의 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YWCA 신임회장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는 지난 2월 6일(화)~7일(수) 열린 정기총회에서 한영수 제1부회장이 제4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제1부회장은 원영희 제2부회장이, 제2부회장에는 이종임 제2회계가 뽑혔다. 한 신임 회장은 “회원들의 소리를 겸손히 받고 시민들, 특히 여성과 청년의 기대를 새겨들겠다”고 말했다.

한국CBMC 신임회장 이승을



한국기독교실업인회(한국CBMC) 제 51차 정기총회가 지난 13일(화)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아현성결교회 엘림아트홀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원들은 이승을(70) 한국CBMC 중앙 부회장을 제 18대 중앙회장에 선출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온누리교회 장로이다.

이정훈 교수 ‘동성애 안된다’



조계종 승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울산대 법학과 이정훈 교수가 동성애의 파도 속에서 교회를 지키겠다며 신간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경남북스)를 펴냈다. 이 교수는 “이 책은 후일 우리가 우리의 인일과 무지, 혹은 교만으로 인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중대하고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SBS 서울방송이 언제부터 기독교방송이 된 것인가?

SBS 방송(대표 이사 박정훈 이하 서울방송)이 지난 2월 5일(월) 저녁 8시 뉴스에 한국교회의 노조 문제를 보도하였다. 서울방송은 ‘교회법에는 노조가 없다, 대형교회 형태로 우는 울음’이란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그 내용은 교회 안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노조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서울방송이 교회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면서 교회를 일반 회사나 기업체로 생각하여 노조를 틀먹이는 것이다.

교회는 일반 사업장이 아니므로 노조가 결성되고 활성화될 수가 없다. 교회는 본래 모든 관리와 유지를 위해 교인들이 참여하여 봉사해 왔다. 그러나 일부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할 일이 늘어나고 직원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교회는 고용주가 있는 곳이 아니고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어떤 결사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종교와 신앙 특성상 맞지 않는다. 또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하여도 일반 회사들처럼 교역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제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방송이 이를

교회의 횡포로 몰아가는 것은 교회들에 흠집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방송은 최근 3개월 사이에 기독교 관련된 방송 내용을 한 달에 3~4차례씩 집중 보도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 12월부터 최근 사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보도하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 72건을 보도하였다. 이로 놓고 보면 서울방송이 어느새 기독교방송(?)이 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물론 부정적 방송 내용이 대부분이다.

한편, 최근 3개월 사이 타종교에 대하

여 보도한 것을 찾아보면 불교계 2건, 천주교계 1건인데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부정적 내용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SBS수목드라마(기획 박영수 연출 주동민 극본 최경미) ‘리턴’에서는 도박과 마약, 불륜과 살인 등 극도의 폭력성을 가진 다중인격장애자가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신학대학 교수로 나오고 있다.(극중 인물 김학범, 배우 봉태규) 그런데 그 신학대학 이름이 한국의 유명한 교회 이름과 같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시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저자 조용목 목사
- 자 최완기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말씀의 회복 / 전하기와 받기

박노훈 목사 // 신촌성결교회 담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 기술의 발달로 설교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말씀이 교인의 삶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읽는 모습은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습니다. 내 성경을 내 손으로 펴서 읽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단지 들려오는 것에 귀만 열여 놓는 편리성의 추구로 퇴화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의 실종은 강단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설교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설교자들의 오류는, 놀랄케도 성경 텍스트를 쉽게 간파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을 해석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거나, 자의적 해석에 만족하는 현상에 대해 정영섭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하나님 설교자들이 성서 텍스트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성서 텍스트가 해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성서 텍스트는 실종된 채 설교자의 주관적인 신앙체험이 과잉 생산되며, 성서 텍스트가 다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단지 규범으로만 취급된다.”

지경을 넘고 세대를 넘어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말씀 전하기와 듣기, 두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가 요청됩니다.

■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가?

강단의 증언은 본문의 맥락에 관한 충분한 숙고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진지한 설교자는 본문이 전하는 본래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한 엄격한 본문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때로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고, 문화적 배경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의 작업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될 때 말씀의 진의가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중심성은, 특정한 관점과 전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의미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돕습니다. 본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은 이념의 과잉 시대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세워 줍니다.

그런데 강단의 증언이 ‘성경적’이어야 함은 말씀의 증언이 단순히 본문의 일차적 의미에 집중되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의 증언 속에서 그리고 말씀의 증언을 통해, 성경의 세계는 오늘의 세계를 드러내고, 오늘의 세계는 성경의 세계를 체험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먼 옛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세상은 서로에게 언제나 낯설기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세상은 인간의 욕망이 충동하는 전쟁(戰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당스러워 합니

다. 말씀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환영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재난 앞에서 경고의 나팔을 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운명입니다. 말씀의 전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고 타락을 파멸을 예고해야 합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눈 속에 갇혀 있어 죽어가는 사람은 포근한 꿈을 꾸고자 합니다. 포근한 잠에 빠진 그를 깨우면 그는 고통스런 현실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것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에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 말씀을 어떻게 청종하는가?

말씀을 듣는 것은 곧 하늘에 우리 삶을 비추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말씀을 받는 사람은 항상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영접하려는 이들에게 말씀은 강력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히 4:12)

오직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역사는 수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다음의 상징은 단지 몇 가지 사례들에 불과합니다.

“내 발의 등이요”(A Lamp to My Feet): 하나님은 말씀은 성도의 삶에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등이요 어둠길을 비추어 주는 빛입니다.

“캐논”(Canon): 말씀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기준과 척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립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다른 무엇이 아닌 성경에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여야 하는지”를 다시 발견합니다.

“기쁜 소식”(Good News):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위로와 격려, 긍휼을 담고 있습니

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소망을 얻습니다.

“교정렌즈”(Corrective Lens): 하나님 말씀은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믿음의 시각을 갖게 합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가나안 땅을 찌고 꿰어 흐르는 땅으로 그 땅의 거민들을 자신들의 ‘먹이’로 바라보았 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징들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말씀을 청종할 때 일어나는 말씀의 역사들입니다.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니다(예 10:10.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맞장구를 칩니다. 좋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대한 경외는 우리로 그것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게 하며, 외면하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게 합니다(시 119:161.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요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된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이 없으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말씀이 삶으로 열매를 맺는 일도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았습니다(겔 47).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불어나서 큰 물을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죽은 나무도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다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가정마다, 인생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밤이 깊을수록 별빛은 더욱 영롱하게 빛납니다. 오늘도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빛 되신 말씀으로 인도받은 한국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을 위해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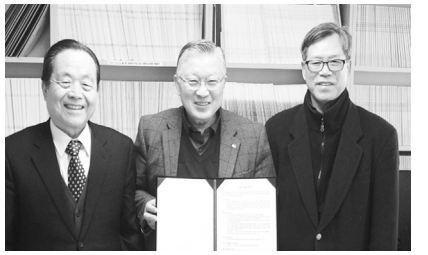
원로목회자와 홀 사모 위한 사랑의 쌀독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독거 원로목사들과 홀 사모를 돕기 위한 ‘지구촌 사랑의 쌀독’ 설치 협력체결

지난 1월 5일(금) 사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과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조석규 대표회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13번길 28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서 김병돈 정책국장과, 최기준 서기가 배석한 가운데 사회공헌협력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2016년부터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의 생활이 어려운 독거 목사와 홀 사모들에게 매달 500kg의 쌀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17년에는 매달 600kg의 쌀을 지원하고, 2018년 올해부터는 매달 700kg 쌀을 지원하여 현재 약 1만 3천kg을 지원하였다.

사회공헌협력협약을 마친 후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조석규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께서 훌륭하신 사역을 시작하여 많은 도움을 주셨으니 앞으로는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가 앞장서서 1천개 교회에 1천개 사랑의 쌀독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평생을 묵회 하다가 은퇴한 후 생활이 어려운 전국의 1만 명의 원로목사님들과 홀사모님들



에게 매달 쌀을 지원하여서 그들이 식량걱정을 하지 않고 평안히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협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또 “이울러 이런 귀한 시역에 전국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참하여 1만 명의 원로목사님들과 홀 사모님들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선한 뜻이 꼭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하며, 많은 교회의 성도들께서도 이 사랑의 쌀독 설치 사역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팬클럽 ‘정운호팬’, 3호 미니도서관 지어

2017년 전역 기념 기부 등 선행 꾸준히 이어와, 기아대책

가수 정운호의 생일(2월 6일)을 기념해 팬클럽 회원들이 미니도서관을 지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팬클럽 ‘정운호팬’과 함께 지난 2월 7일(수) 오후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강서행복한홀스에서 미니도서관 개관식을 진행했다.

이번 미니도서관은 ‘정운호팬’이 지은 3호 도서관으로, 팬클럽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책과 책장, 책걸상 등을 마련했다.

정운호팬은 지난해 4월, 정운호의 전역을 기념해 서울 강서구의 랍원행복한홀스와 부산 영도구 영도행복한홀스에 미니도서관을 지은 바 있다. 행복한홀스쿨은 기아대책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 정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팬클럽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게 되길 바라는 정운호 씨의 뜻에 우리 팬들이 힘을 모을 수 있어 기쁘다”며 “이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큰 꿈을 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정애 강서행복한홀스쿨 시설장은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했는데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정운호의 팬들은 기아대책을 통해 꾸준히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 2월에는 팬들의 후원금으로 아프리카 가나 발카탐가 ‘유노윤호센터’를 지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쌀 기부, 아프리카 아동들을 위한 학용품 전달 등 활발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

- 아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5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8년 3월 26일(월)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7월 13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24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 http://www.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

순복음세움교회 새성전 입당감사예배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조병희 목사
부산지방회장
기성순복음교회



정기영 목사
부산지방회 중경회장
순복음세움교회

일시 :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정기영 목사)
부 산 지 방 회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191-777(010-4841-4245)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장기부전 환우들을 위해 생명나눔운동 펼쳐

지난 2월 8일 장기부전환우를 위한 후원금 1000만원 전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지난 2월 8일(목) 명선교회(담임 배성태 목사)의 희망나눔콘서트를 통해 특별한 전달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명선교회는 이번 희망나눔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금 1,000만원 전액을 장기부전 환우를 위해 본부에 기부했다. 배성태 담임목사는 “장기기증을 아테게 기다리며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을 응원한다”며 “특별히 이번 콘서트를 통해 환우들을 도울 수 있어 준비하는 시간이 기뻐다”는 소감을 전했다.

희망나눔콘서트는 명선교회 소속 예술단인 조이 라이프가 진행하는 콘서트로 지난 8월 15번째 정기 연주회를 진행했으며 오케스트라 연주와 합창, 어린이 뮤지컬, 타악퍼포먼스 등 관객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선물했다. 이에 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공연이었다”며 “후원금은 저소득층 환우의 수술비 지원 및 장기기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유용하게 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명선교회는 지난 1월 28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생명나눔예배를 드렸으며 30명의 성도들이 생명을 나누겠다는 약속에 동참했다.

이어 지난 2월 11일(주일) 전복 익산시에 위치한

기쁨의교회(담임 박윤성 목사)에서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전하고자 전복지구 분병호 목사를 주일 설교자로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박윤성 담임목사는 “전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자”며 “생명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설교를 했다.

이어 문 목사가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설파하며 성도들에게 장기기증의 희망등록을 호소했다. 그 결과 기쁨의 교회 성도 총 226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박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명나눔으로 동참해준 기쁨의교회 성도들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앞으로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생명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2018년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대표회장 전용재)는 지난 2월 12일(월) 오전 7시 30분 중구 정동 컨퍼런스탑에서 2018년 신년이사회 및 총회를 가졌다.

장한일 상임이사의 사회와 김동엽 상임회장전 예장통합 총회장의 기도로 시작된 회의에서 전용재 대표회장(전 감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되었던 북한 통일화합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할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이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더 평화의 나무를 심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상임회장 겸 본부장(전 농림부장관)은 “북한 나무심기 산림영역 남북교류를 위해 통일부를 비롯한 농림축산부와 산림청 등 정부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갖자”라고 말했다.

장한일 상임이사는 한국교회의 북한나무심기운동을

전개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장단기 통일화합나무심기운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범국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이날회의에서 각 단체, 기관의 대표자를 운영이사로 추천하여 3월 이사회 때 의결하기로 의결했다.

KGPM은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 주최와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 만그루심기 범국민운동 국회심포지엄(2014년 8월 19일 국회의원회관)과 범인장립총회 및 녹색한반도 통일화합나무 8천 만 그루심기 범국민운동본부 발대식(2014년 9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사단법인 한반도녹색평화운동협의회(KGPM) 법인인가(농림축산식품부)(2015년 5월 1일)후 첫 번째 사업으로 두만강 평화통일화합나무심기 발대식(환경북도 나주시 원정, 조선리 등) 10 만 그루 식수(2015년 5월 25-28일)를 진행한 바 있다.



월간 《아동문학》, 계간 《크리스찬문학》 창간 29주년 기념식

대한민국 아동문학작가대상 양봉선, 크리스찬문학작가대상 오승재

‘동심과 함께, 양심과 함께, 세계와 함께!’ 라는 모토로 지난 1988년 12월 창간된 순수아동문예지인 월간 《아동문학》과 ‘생명을 살리는 문학’을 표방하고 1988년 5월 창간된 기독교종합문학지 계간 《크리스찬문학》의 창간 29주년 기념식이 지난 2월 9일(금) 오후 2시 미술사박물관 한국본교 강당에서 26회 대한민국 아동문학문학대상 시상식과 제14회 대한민국 크리스찬문학작가 대상 시상식과 함께 열렸다.

두 문예지는 이 고장 함평출신의 원로 아동문학가인 김철수 박사에 의해 고향땅을 지켜오면서 향토문학과 함께 30여 년을 지켜왔다. 인구 3만여 명밖에 안 되는 이 지방 함평군에 본사를 두고 전국은 물론 전 세계 14개국에 연락사무소를 개설 국제적인 잡지로 성장 발전해왔다.

또한 해외교포 및 동포후대들에게 우리글과 우리말을 보존하여 민족정체성을 일깨우는 나라사랑운동에도 크게 기여해왔다. 한편 지난 30여 년 동안 국내외에 있는 유능한 시인과 수필가, 소설가, 아동문학가 등 약 900여 명의 작가를 발굴 육성해오면서 문학을 통한 교포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도 감당해오고 있다.

이날 영예의 대한민국 아동문학대상과 크리스찬문학작가대상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 ◆제26회 대한민국아동문학작가대상 수상자
대상: 양봉선(동화작가/전주, 본상:백소영(동시인/정읍), 장재욱(동화작가/하남)
- ◆제14회 대한민국크리스찬문학작가대상 수상자
대상: 오승재(소설가/대전), 이형숙(시인/서울), 김수영(동화작가/인천)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 새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사랑

사랑강사 조광동 목사 세미나서 강조

새사랑개혁운동세계본부(총재 조광동 목사)는 지난 1월 30일(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여전도회관에

서 새사랑부흥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모든 것은 사랑이 해결합니다 (고

전 13:1~13)라는 주제로, 30여 년 전부터 새사랑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조광동 목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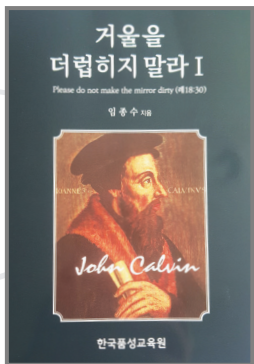
조 목사는 “새사랑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의 사랑이며(요 13:34), 사랑하여 결혼하고서도 싸우고 다투며 폭력을 휘두르고 이혼까지 하는 세상 사랑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 곧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강조했다.

조 목사는 계속해 “새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랑의 기쁨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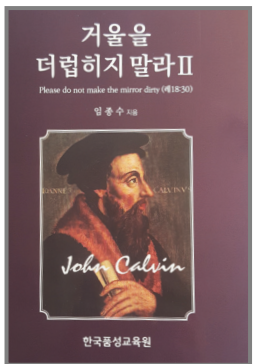
사랑강사 조광동 목사는 성경적 사랑연구를 33년간 해 온 새사랑부흥전문 강사로서 저서로는 ‘사랑의 힘’, ‘새사랑 성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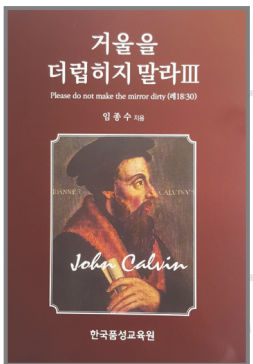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적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였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하고 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그룹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선교 유적 3차원 광대역 스캐닝

지리산 왕시루봉의 선교 유적 12채를 찍어 보관하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교훈과 미래에 나아갈 소중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특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기록과 현장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상실감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선교 유적지를 잊지 않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의 소식이 있다. (사)지리산기독교선교유적지보존연합(이하 보존연합)에서는 이런 기록들에 대한 보존을 위하여, 3차원 광대역으로 스캐닝 영상을 만들어 이를 영구히 보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보존연합에 의하면 지난 2월 7일(수) 이사장 인요한 박사와 오정희 상임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공문화유산 보존기록연구소의 지리산 선교유적 스캐닝 영상자료 전

달식을 가졌다. 이 자료에는 풍토병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하는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어진 선교 사역을 위해 고단한 삶을 살았던 세계 각국 선교사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이 자료를 통해 지리산 선교 유적지의 건물 12채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적지가 손실된다 하더라도 원형 그대로 복원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었다. 오정희 상임 이사는 “선교사님들의 신앙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건강하게 되며, 선교사 유적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지리산선교유적지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기독교인학교 1기 종업식 및 수료식

2기는 오는 3월 8일 개강

기독교인학교(교장 김신영 시인)가 제1기 종업식 및 수료식을 지난 1월 30일(화) 창조문예문화교실에서 가졌다. 기독교인학교는 4개월 1년 40주를 기독교에 대한 열정으로 함께 해야 하는 하드 트레이닝 과정이다. 교장 김신영 시인은 “기독교시에 대한 일반시민의 편견에 기독교인 양성의 꿈을 갖게 되어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기독교인학교는 10명으로 시작하여 9명이 수료하였으며, 기동단자가 있지만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창조문예로 등단(문헌재, 조정례), 양주김삿갓문학대회 대상(김미사) 등 굵직한 성과를 이

루었다.”고 밝혔다. 창조문예 발행인 임만호 장로는 수료생들에게 “이제 사회나 교회에서 큰일을 감당 하면서 기독교의 창작에 열정을 아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김신영 교장은 훈시를 통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더 정진해야 하며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시를 창작해야 한다면서 위대한 기독교인의 탄생을 위하여 지고의 노력으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업식 및 수료식을 끝으로 기독교를 쓰는 훌륭한 시인양성을 기원하면서 행사를 마쳤다. 2기는 오는 3월 8일 개강한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예수영접은 곧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가족세트전도에는 범죄로 인하여 에덴동산에서 잃어버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비법이 있다. 바로 요 1:12 말씀을 가지고 하는 예수영접이다. 범죄이후 사단의 권세 속에 속아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이는 지인을 통해서였다. 박영수 목사님과 함께 가족세트전도집회를 하면 좋다고 하여 전화로 연락을 했고, 한 달 동안 기도준비를 하며 집회를 기다렸다. 강사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고 집회에 참석해 본 적도 없어서 가족세트전도집회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지인의 추천으로 12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전도 집회를 하기로 한 것이다. 요즈음 나는 2018년 1월 첫째 주 수요일부터 새벽기도를 마치고 의정부 역전에서 외침전도를 하려고 옆에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있다. 한 달 동안은 옆에서 지켜보다가 지난주에는 혼자서 외침 전도를 1시간동안 하였다. 새벽에 외침전도를 하니 미친 사람이 하나 늘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내 속에서 무엇인가 힘이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외침전도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예수 믿는 것을 보고 싶은 나에게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요 1:12 말씀을 가지고 박영수 목사님이 전도하는 것을 보니 1분 30초안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축복기도 받는 모습이 놀라웠다. 마귀가 조금도 틈을 탈 시간이 없었다. 박영수 목사는 42년간을 이렇게 영접기도를 통해 전도를 하였으니 아마도 마귀가 분석하고 분석하며 언제 방해 할까하고 지금쯤은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20명이 1시간 20분 동안 가게에서 길에서 노인정에서

주택에 들어가서 예수영접을 하는데 약간의 머뭇거리는 증상도 있었지만 그래도 거의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물론이고 식구들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다 알려 주는 것이었다. 그동안 많은 전도전략을 짜고 또 짜서 전도대상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으려고 하여도 얻기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이 힘들었다. 한명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영접 시키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만남과 섬김을 가진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예수영접을 시킨다. 그것도 여짜다 하는 것이지 오랫동안 섬기고도 거의 예수영접 못하고 말 때가 많았다. 그런데 오늘 가족세트전도집회 12주 중에 첫 번째인데 1시간 20분 동안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사람이 무려 20명이며 이름까지 노트에 적고 어떤 분은 가족까지 이름과 생년월일을 다 알려주고 교패까지 불고기 기념사진까지 같이 찍은 것이다. 요즈음 교회를 나와도 심방도 안하고 교패도 안 불다가 어느 순간 바람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불신자가 전도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축복기도 받고 교패까지 불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12주 동안 3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도하며 목표를 세우고 전도하고자 한다. 가족세트전도를 소개해준 지인과 인도해준 박영수 목사,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용현동교회 담임 박광필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만성신부전환우 후원금 천만원 전달식

“혈액투석환우들을 위해 따뜻한 침구를 기부합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지난 2월 9일 금요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H지구(총재 임상철, 이하 354-H지구)가 제주 라파의 집에서 특별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354-H지구는 만성신부전을 위한 휴양시설인 제주라파의집의 침구류를 교체할 수 있도록 10,412,0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약 4개월간 라이온스 회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펼쳐 마련한 후원금을 전달한 후, 354-H지구의 임상철 총재와 임원진들은 지난 9일, 제주 라파의 집의 침구류 교체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 이날 라파의 집에는 354-H지구 임상철 총재, 이재일 제1부총재, 강병하 제2부총재, 안병찬 사무총장, 백영주 재무총장, 이명로 수석사무부총장, 권금래 수석재무부총장, 송경희 장기기기증추진위원장이 방문했다. 특히 임상철 총재는 “국제라이온스 354-H지구가 장기기기증 운

동과 인연을 맺고 지난 4년 간 지속적으로 후원에 참여하며 협력해왔는데, 이렇게 직접 제주 라파의 집 현장을 찾게 돼 매우 기쁘다.”며 “신장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과 장기기기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부와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354-H지구는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서 지구 내 7개 지역으로 편성해 52개 클럽에서 1천700여명의 회원들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다양한 나눔과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354-H지구는 지난 2015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경기지부(김미영 지부장)와 인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회원들과 자선바자회 및 체육대회를 통한 모금활동을 펼쳐며 총 32,312,000원의 후원금을 마련해 제주 라파의집을 지원해왔다. 제주 라파의집 환우들을 위한 혈액투석기와 투석을 할 때 필요한 의료 소모품인 다릴라이저 등의 구입 등을 지

원해 온 354-H지구는 올해는 특별히 신장투석실의 침구류와 환우들의 숙소의 침구류 등의 교체를 지원하게 됐다. 3년간 본부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온 장기기기증 추진위원장 송경희 씨는 “저희 지구가 제주라파의집을 방문하는 많은 환우들의 치료와 재충전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기쁘다”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신장병 환우들을 돕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본부 박진택 이사장은 “요즘같이 매서운 한파에도 가장 따뜻한 온기와 사랑을 나눠준 국제라이온스 354-H지구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신부전 환우들에게 따뜻한 잠자리와 편안한 치료실 환경을 만들어준 354-H지구의 정성과 사랑에 제주라파의집 환우들의 삶이 더욱 건강해지길 기대해본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의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홍보팀 02-363-2114(내선5)

(사)월드뷰티헨즈, 미주본부 창립준비위 발족

저개발 국가와 북한주민 대상 뷰티서비스



(사)월드뷰티헨즈(WBH 이사장 장현일, 회장 최에스더)는 글로벌 뷰티NGO 네트워크 사업 역량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WBH 미주본부창립준비위원회를 지난 1월 22일(월) LA에서 갖고 본격적인 창립준비를 시작했다. 이날 장현일 이사장은 “K-뷰티를 통해 미주지역이 중심이 되어 미주는 물론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저개발 국가와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뷰티서비스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최 에스더 회장(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 교수)은 “K-뷰티 중심의 한류에 힘입어 미국을 중심으

로 저개발국가를 섬길 수 있도록 미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뷰티전문가들이 네트워크하여 뷰티서비스는 물론 뷰티전문인을 양성하여 자활과 자립을 위한 국제 지원 허브 역할로서의 미주본부 창립취지”를 설명하고 조직구성과 운영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미주본부 창립준비를 위해 윌리엄 영 김 회장(미주장로신문사, WCKNC 지역의원과 429 LA 가립재단 허종 회장(남가주교현 부이사장)을 비롯한 각계 대표자를 준비위원으로 구성하고 뷰티관련 대학과 뷰티산업체 등 뷰티분야 관련 대표를 선임하여 미주 각 주 지회장 위촉을 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금년에 창립하기로 합의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염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agpgs.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2년 (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를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 오후 4:40분 까지 진행한다.
- ④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www.agtc.or.kr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리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⑥ 건강진단서(HIV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7년 12월 4일(월)부터
- ② 원서접수 : 2018년 1월 8일(월) ~ 2월 23일(금)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헌법개정이 국가의 정체성 해쳐서는 안돼

교과서, 헌법과 정통적인 역사 이해를 넘어서는 집필은 용납될 수 없다

헌법개정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그 실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이 설명한 내용에 의하면 헌법 130개 조항 중 90여 개를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니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듯하다.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현 여당이 개헌하려는 내용에서 현행 헌법 제4조에 나오는 '자유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제외했다가 실무자의 실수라며 없던 것으로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나 '민주주의'가 크게 다르지 않고 '자유'라는 말을 빼도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또 헌법 전문에 '행정 수도'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추가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구도 넣는다는 것이다.

거기에 편승이라도 하듯 교육부가 추진하는 중·고교생들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되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초안을 보면,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민주주의'만 넣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동안 '자유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국가의 정체성이다. 1987년 개헌할 당시, '자유 민주주의'는 독재와 구별되고, '인민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로 선택한 헌법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하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로 빠지지 않았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붙었으나 국민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들과는 차별성이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 자유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로 국민을 억압하고, 절대적 독재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로서는 정부 여당의 발상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로 발전한 근거이며, 정치가 안정됨으로 경제나 다른 분야에도 놀라운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세계에서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결과이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헌법 제119조에서 보장하는 개인

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현대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미흡한 시점에서 헌법에 적시하려는 것은 의도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들어 통치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주장했는데 이제 그 공약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이념적 의심이 가는 조항들에 왜 집착하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조급하게 서둘러 '악법'이란 오명을 받아서도 안 된다. 또한 특정 정파가 이익이나 이념적 고착화를 위한 욕심을 낸다면 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대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어느 나라가 현재 우리나라처럼 급조 개헌 하려고 하는가? 현재 우리 헌법은 비교적 잘 만들어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30년 간 우리나라를 잘 지켜 왔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잘못 고치면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 한국교회언론회

사 설

‘자유’도 ‘北 남침’도 뻔 역사 교과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 교과서를 반(反)대한민국으로까지 빛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의 초안이라고 하지만, '북한 정권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이라고 적시한 현행 기준에서 집락주체를 표현하지 않은 6·25전쟁으로 비꾼 것으로 5일 보도됐다.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도 빼며,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사실을 흔들고 왜곡한 대목이 이밖에도 수두룩하다. 6·25전쟁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집락 주체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발미를 제공한 전쟁' 등으로 사실을 호도한 수정주의 사관(史觀)이 한때 횡행한 적도 있으나, 이제 폐기되다시피 했다. 그런데도 이를 되살리겠다는 저의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간적 세습독재 체제의 전체주의 실상을 민주주의로 위장하는 북한식(式) 표현인 인민민주주의는 물론, 사회민주주의와도 구분되는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가치인 사실마저 외면

한 이유 또한 그 연장선일 것이다.

유엔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등과 함께 새마을운동, 중동 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학습 요소를 삭제한 배경도 달리 있기 어렵다. 미래세대 교육을 반미(反美)·자학(自虐)사관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학생들의 역사관과 국가관을 근본적으로 비틀어지게 할발상(發想)을 당장 접고, 그 초안은 폐기해야 한다.

우려되는 것 가운데,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현행 헌법에 존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빼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정치적·역사적 희생물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조차도,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형적 역사 인식을 심어주어, 국민적 미래를 잘못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어찌 교과서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내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인가?

복음의 빛진 자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2월 19일 교단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2018년 새해 첫 임원모임을 갖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복음전파 활동을 통해 말씀이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고 공의로 그 허디파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피를 삼는 목회자들이 되어서 한국교회가 제2의 부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복음을 흔탁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활개를 치는 지금의 영적상황에서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비 진리의 세력들을 대적하려면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호러 이를 감사조 여기고 우리에게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상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며 조금도 주눅 들지 말고 강하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는 2018년 한 해에도 교단신학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부흥회를 열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망설이

고 있는 교회에 자비량성회를 적극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부흥사회 임·회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부흥사들에게 맡겨진 사명감당을 위해 더욱 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올 한 해는 해외부흥집회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가 복음을 전할찌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고전 9:16)

바울 사도는 전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다. 그는 또 이어서 복음의 빛진 자라 그 빛을 감지 않는 한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고도 말했다.

어찌하든지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해도 좃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내려 주신 명령이다. 이 명령은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47차 정기총회 개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헌당 위해 비전공유 박차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이사장 박선희 목사) 중앙본부 제47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3일(화)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 2층 김마리아홀에서 열려 2017년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결산하고 2018년 사업 및 예산편성(안)을 인준했다.

군선교연합회는 먼저 2018년 중점지역으로 육군훈련소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의 운전한 헌당과 비전2020실천운동 내실화를 기할 것을 다짐했다.

연무대군인교회 새 예배당의 경우 오는 3월 24일 입당예배와 함께 새 예배당에서 거행되는 역사적인 첫 진중세례식이 예정되어 있다. 첫 진중세례식은 한국기독교실업인회(CBMC)가 후원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은 올해로 선포 20주년을 맞아 목표연도까지 3년여 남은 만큼 전도→세례(침례)→양육/영양수집 및 지역교회 연결에 이르는 선순환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Yes Mission(예스미션)을 통해 대학/캠퍼스-지역교회-군대-직장을 잇는 4벨트를 통해 전역 후 청년 양육, 군인교회 양육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선교연합회는 이외에도 대대급 군인교회 부흥지역을 위한 1:1 결연, 지역교회의 군인교회 신자 양육, 군선교교역자 운영 체계화·전문화·정예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한국교회 군선교사역을 위한 정책 개발 특별 정수 및 표본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1004군인교회당 시설 상태전수 조사에 나서며, 한

국교회 남성 신자(45세 기준) 세례 관련 표본조사가 실시된다.

한편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군현장의 최대 이슈인 △군행벌 92조의 6 △종교적 병역거부 및 병역 대체법 △양성평등→성평등 개헌 △군대 이단/사이비 활동 등에 대한 군선교연합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도 발표될 예정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잡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알려드립니다

교단 부신지방회 중경회장 박용호 목사입니다. 지난해 목회자세미나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개최하면서 청정자연의 품은 정말 좋은 환경의 산청한방가족호텔에 매료되어 사외이사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종 교회행사과 세미나, 회의, 발표회 등 귀한 행사에 좋은 환경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연락주시면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에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 사외이사 박용호 목사 010-4873-0448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모이자! 나가자! 외치자!

교회여 일어나라

공산·사회주의 개헌반대 / 자유민주수호 / 한미동맹강화

3·1절 오후 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3번, 4번 출구 앞 / 이순신동상 앞

1부 1:00~2:00	구 국 기 도 회
2부 2:00~3:00	범 국 민 대 회
3부 3:30~	단 체 별 행 진

참여단체:한기총, 한기연, 한교총, 미래목회포럼, 평신도
지도자협의회, 전국장로회, 전국여전도회, 청년연합회
애니선교회, 청교도영성훈련원, 각 지역 17개 광역시 대표

문의. 1544-0191

